

몽골 불교문헌, 복원·보존 '청신호'

ACIP, MAOS 올해부터 몽골 프로젝트 재개

"2015년 몽골 불교문헌의 전체 색인 성과 낼 것"

20세기 말 학자들의 손길을 거치며, 학술·종교적 가치로 세간의 이목을 잡았던 몽골 소재 불교문헌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라시아넷(eurasianet.org)에 따르면 '아시아 고전 입력 프로젝트(Asian Classic Input Project, 이하 ACIP)'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연구소(Global Institute For Tomorrow, 이하 GIFT)'의 지원을 받아 향후 1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몽골 프로젝트'를 5년 만에 재개한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ACIP는 몽골과학아카데미(Mongolia Academy of Sciences, 이하 MAOS)와 함께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몽골 소재 불교문헌에 대한 복원 및 보존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불교장경을 비롯한 몽골의 불교문헌 대부분 불교 사원이 아닌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몽골 국립도서관'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의 공동 연구에서 확인된 것만도 1백만여 점에 이른다. 이 중에는 현존하는 고대 경전 가운데 회귀본으로

분류, 주목되고 있는 캉유르(Kangyur, 붓다 법문)과 텡유르(Tengyur, 주석·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고대 경전은 티베트 원전 또는 몽골 번역본 형태로 남아 있다. 티베트 고대 불교문헌 대부분 1950년 중국의 라싸 침공 이후 유실·파손된 상황에 비춰볼 때, 그 가치는 한껏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몽골 국립도서관은 2세기경 자작나무 껍질에 기록된 나가르주나(Nagarjuna, 龍樹)의 산스크리트어 문헌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00구절로 기록된 이 문헌은 세계 유일본이다.

"ACIP와 MAOS가 지난 9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몽골 소재 불교문헌의 학술·종교적 가치를 확인·추론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 유라시아넷은 몽골 국립도서관 차라자브 쿠아이다브(Chilaajav Khaidav) 관장의 말을 인용, "ACIP와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던 2008년 당시 관련 학계 안팎에서는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며 "이번에 재개될 '몽골 프로젝트'가 몽골 소재 불교문헌을 분류·분석하는 것



몽골 국립도서관 직원이 고대 경전 회귀본과 불교문헌을 보여주고 있다(왼쪽). 도서관은 2세기경 자작나무 껍질에 기록된 나가르주나의 산스크리트어 문헌도 소장하고 있다(오른쪽).



외에도 복원·보존 등의 분야로도 한 걸음 내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쿠아이다브 관장은 인터뷰에서 "몽골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닌 세계의 보물"이라며 "이들 불교문헌은 티베트와 몽골을 떠나 인류 역사의 한 조각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라시아넷은 이번 프로젝트의 몽골 측 담당자인 니야모치르 곤총(Nyamochir Gonchog) 박사

의 말을 인용,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 대부분 1920년대 몽골 공산정권의 불교탄압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았지만, 당대 불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존할 수 있었다"며 불교문헌과 얽힌 이야기도 전했다.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은 대부분 가정자리에 불에 탄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3만여 명의 스님이 '강제 환속' 되고, 전체 몽골사원의 90%로 달하는 700여 개의 사원이 파괴되었던 당대의 아픈 역사

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전한 곤총 박사는 "그러나 당시 불교지도자 복드 칸(Bogd Khan)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불교문헌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때론 파괴된 사원 주변에서 불교문헌을 찾아내어 보관해온 것이 지금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자 개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오던 불교문헌은 1960년대 관련 연구자들에게 기증돼 세간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 MAOS 설립과 몽골·티베트학(Mongolian and Tibetan Studies) 신설을 기점으로 복드 칸 스님의 소장본 문헌이 일체 기증되는 한편 이에 고무된 불자들의 소장 문헌도 이곳 국립도서관에 모일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ACIP 측 담당자인 나왕 가초(Ngawang Gyatso) 스님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매우 느리고 조직적인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헌의 외형과 그 재질은 물론 기록된 문헌의 출처도 밝히는 한편 알파벳으로 음역하고 전산화 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유라시아넷에 따르면, ACIP와 MAOS는 2015년 말까지 몽골 국립도서관 소장 불교문헌 전체의 목록을 색인·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8>·끝



"붓다의 중생설법은 사회개혁 위한 것"

암베드카르 불교해석의 특징

암베드카르는 불자가 된 불가촉천민들이 불교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을 저술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출판한다. 책에서 그는 자신의 불교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다소 과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 또한 그는 '불가촉천민의 구원'이라는 명분만 목표로 가지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불교의 교리는 삭제하거나 부정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는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四聖諦)를 부정했다. 그는 생과 사가 모두 고통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며 이 교리가 불교를 엄격한 종교로 보이게 한다고 비난했다. 사성제 때문에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이것이 후세의 슬퍼들에 의해 추가된 개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는 업이란 또한 불교를 잘 모르거나 불교를 힌두교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사람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가 다음 생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업의 결과는 현생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생의 업으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면 모든 것이 과거의 업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므로 현재의 인간의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암베드카르 입장에서는 불가촉천민들의 현재 고통이 과거 자신들의 악행 탓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업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생의 악행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또한 내생에 어떤 과보도 받지 않게 된다. 업이론을 부정하기 보다는 전생의 악행으로 인해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상위카스트들이 그들을 핍박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님을 인지시키고 더이상 악행을 짓지 않도록 계도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암베드카르는 종교가 개인의 정신적 구원의 도구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울타름을 확립하는 사회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교관은 그의 불교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암베드카르의 불교관 독점

업이론 부정...대립이 품의 원인

붓다 출가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

부처님 또한 사회개혁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며 부처님의 출가에 대한 독특한 묘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이 출가 전 싯다르타 태자였을 때 이웃 부족인 콜리아족과 로하니 강물의 사용을 두고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부처님의 종족인 사카족은 콜리아족과의 전쟁을 결의했고 싯다르타 태자는 그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게 되자 그는 해결책으로 자신이 출가를 하겠다며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출가를 한 싯다르타에게 사카족의 사신들



불가촉천민 출신인 마야와티 前 쿠마리 우타르 프라데시 주 장관이 암베드카르상에 참배하고 있다.

이 찾아와 콜리아족과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전하며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청했다. 그러나 그를 출가하게 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국가나 개인 사이에 수많은 대립들이 존재하며 이 대립이 번뇌와 고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싯다르타는 그 사회적 대립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하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이것이 암베드카르가 말한 부처님의 출가동기이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의 출가동기인 사문유관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학자들 역시 부정하는 부분이므로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책

에서 사문유관을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부처님의 출가를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출가에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있어 부처님은 정치·사회문제에 관심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전 생애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쳤듯이 부처님도 사회적 부당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개혁가이기를 그는 바랐을 것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사회개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책에서 그는 '이 세상에 수많은 불행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붓다는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력행자가 되어도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중생구제를 위해 설법을 결심했다는 경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부처님의 첫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 역시 부처님을 시대의 모든 지적 혼란을 거친 '사회 개혁자'로 받아들였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암베드카르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적 대립을 고의 원인으로 보는 암베드카르의 견해 또한 기존의 불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고는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하셨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고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암베드카르와 불가촉천민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은 카스트로 인한 계층대립이었으므로 그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세상의 모든 분쟁과 대립이 사라진다고 해도 생로병사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간파한 듯하다.

그의 독특한 불교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경전에 나오는 신화적인 내용을 가급적 배제하며 현대에 맞는 합리적인 불교교재를 집필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t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